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재선임... “올해 매출 성장 자신”

자본준비금 감액 등 모든안건 승인  
서정진 대표 “결과로 보여드릴 것”

일부 주주, 성장 가능성 의구심  
“집펄트라 관련 데이터 공개해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셀트리온 사 내이사로 재선임되며 2년 더 그룹을 이끌게 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집펄트라’의 매출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셀트리온은 25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3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임원퇴직금지규정 개정 등 모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서정진 회장의 경영 참여도 2년 연장됐다. 서정진 회장은 앞서 2020년 12월 65세 은퇴 후 지난 2023년 경영에 복귀한 바 있다.



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셀트리온.

첫 복귀에서 서정진 회장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연간 매출 3조5000억원 돌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회사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 설립 등 사업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셀트리온은 통합 셀트리온 출범 첫 해인 지난 2024년 매출 3조5573억원, 영업이익 49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3.45% 증가했고 영업이익

은 24% 줄었다.

이날 주주들은 지난 3월 미국에서 발매한 ‘집펄트라’의 실적 부진에 대해 지적했다. 서정진 회장은 ‘집펄트라’ 영업에 직접 나서, 출시 초기 단계에 직접 판매 체제를 구축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 있다.

다만, 셀트리온이 당초 집펄트라의 2024년 목표 매출을 6000억원으로 설정

했던 데 비해 실제 매출은 366억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은 집펄트라 출하량, 판매 현황 등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주주들은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며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측은 집펄트라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 측은 “집펄트라 처방환자 수는 현재 지난해 4분기 대비 40~50% 정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 출하 물량은 올해 2월 중순부터 매주 10~20% 정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셀트리온 측은 “미국 시장 진입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던 점을 인정한다”며 “미국은 유럽보다 절차가 복잡해 소요시간이 연장됐고 시장 구조가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입고와 출고를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셀트리온은 연간 매출 5조를 목표로 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매출 비중은 유럽 50%, 북미 지

역 30%, 일본과 브라질을 포함한 기타 20%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의장을 맡아 정기 주총을 진행한 서정진 셀트리온 대표는 “올해는 목표 실적을 지키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증가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 시,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셀트리온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배당부터 비과세 배당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주식 동시 배당도 이뤄진다. 셀트리온은 현금 배당은 보통주 1주당 750원 약 1538억원 규모, 주식 배당은 보통주 1주당 0.05주, 약 1025만주를 배당할 계획이다.

서정진 대표는 배당 수익 증가 효과가 높은 약 6200억원 규모의 비과세 배당 재원을 마련해 향후 주주 배당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제일약품, ‘오너 3세’ 한상철 대표 선임

온코네티라퓨틱스 설립 주도  
공동대표 체제로 책임 경영 강화

제일약품 창업주 고(故) 한원석 회장 손자이자 한승수 회장의 장남인 한상철 제일약품 사장(사진)이 공동대표로 신규 선임됐다.

제일약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제일파마홀딩스 빌딩 12층에서 ‘제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한상철 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일약품은 전문 경영인인 성석제 대표와 한상철 대표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는 1976년생으



로 연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전공하고 미국 로체스터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 제일약품 부장으로 입사해 마케팅 전무와 경영기획실 전무, 2015년 부사장을 거쳐 2023년 제일약품 사장에 올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제일약품 지주회사인 제일파마홀딩스 대표를 겸직해 왔다.

제일약품은 한상철 신임 공동대표가 경영에 필요한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회사 성장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상철 대표는 2020년 신약

연구개발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 설립을 주도하는 등 제일약품 핵심 사업 영역을 상품판매에서 신약개발로 확장했다.

그 결과, 온코네티라퓨틱스는 설립 4년 만에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자루보정’을 제37호 국산 신약으로 내놓았다. 후속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중표적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확보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제일약품은 이번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신약 연구개발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 SK바사, ‘박만훈상’ 수상자 4인 선정

안재용 사장 “故박만훈 정신 계승”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가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2025년 수상자로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과 접종을 주도한 4인을 선정했다.

25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올해 박만훈상 수상자에는 ▲벨기에 앤트워프대학 피에르 반 담 교수 ▲게이츠 재단 아난다 산가 반디요파디아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브라질여성그룹’ 루이자 헬레나 트라자노 대표 ▲‘뉴인센티브’ 스메타 자네팔리 대표가 공동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30일 수상자들의 내한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신설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수상자는 전 세계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추천받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혁신적인 백신 개발을 주도하며 보건 산업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故박만훈 부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백신의 개발 및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역대 박만훈상 수상자를 비롯해 세계 공중보건 수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오스템임플란트, 독일서 ‘SOI’ 등 첨단 치과 의료기술 뽐내

IDS 참가... 혁신 신제품 소개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는 29일까지 독일 쾰른 국제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년 국제 치과기자제 전시회(IDS 2025)’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I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과 전시 행사로, 글로벌 유수의 덴탈 기업들이 총출동해 치과 의료기술에 대해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격년 주기로 열려 올해 41회째를 맞는다. 60여 개국에서 20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대 최대인 70개 부스 규모의 전시 공간을 확보했다. 핵심 43개 부스는 브랜드 홍보와 이벤트로 꾸며지고, 나머지 27개 부스에서는 자회사 통합 전시 및 상담을 진행한다. 부스 위치도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주



IDS 관람객들이 오스템임플란트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요 구역인 4.2홀을 배정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풍부한 혈형 형성으로 골유착 성능이 뛰어난 ‘SOI’를 비롯한 임플란트 제품군과 다양한 임플란트 키트, 유니트체어 ‘K3’와 ‘K5’, 신생골 형성 기능이 우수한 골이식재 ‘A-Oss’ 등을 전시한다. 특히 치과 의사들이 직접 사용하고 체험해보는 핸드온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하이오센, 탐플란, 임플라시우 등 자매 브랜드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교정재료 전문 자회사인 오스템올소 또한 이곳 통합 공간에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오스템올소는 교정 전문의들이 투명교정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임상 적용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혁신 신제품을 유럽 현지에서 본격 소개한다.

/이청하 기자

## 투스뽀플레이스, 건강 빵 라인업 강화

‘베리 베이글’ 신규 플레이버 선보

디저트 카페 투스뽀플레이스가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 신규 플레이버(2종)와 크립치즈 스프레드(1종)를 선보이며 건강 빵 라인업을 강화한다.

투스뽀플레이스는 지난해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을 출시했다. 특히 받은 유산균을 넣어 글루텐 함량을 낮춘 베리 베이글은 출시 이후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하며 베이커리 카테고리에서 강한 입지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인기에도 힘입어 투스뽀플레이스는 최근 저숙 노화 트렌드 확산으로 건강 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반영해 신규 플레이버로 ‘멀티 그레인 베이글’과 ‘올리브 치즈 베이글’을 출시했다.

베리 베이글은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인 글루텐 함량이 일반 베이글 대비 45.7% 낮아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정통 베이글 제조 방식을 적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멀티 그레인 베이글’은 참깨와 검은깨 등이 듬뿍 올라간 갈릭 어니언 베이글이다. 쫄쫄한 반죽 사이사이 씹히는 다양한 크기의 그레인이 고소한 맛을 더하고, 마늘과 양파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올리브 치즈 베이글’은 반죽에 블랙 올리브와 롤치즈를 가득 채워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한입 베어 물 때마다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스뽀플레이스의 레시피로 완성한 ‘대파 베이컨 크립치즈 스프레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신원성기자 tree6834@